

아침마다 일을 나가기 전이면 아내는 장갑부터 챙겼다.

“오늘은 이거 써.”

아내가 내민 것은 새 장갑이었다. 나는 장갑을 받아 들고 손바닥을 한 번 뒤집어 보았다. 아직 한 번도 흙을 만지지 않은 장갑은 깨끗했다.

“지난번 것도 아직 쓸 만한데.”

“그건 다 뻘어.”

“내가 알아서 낄 텐데 뭘 또 챙겨.”

“알아서 챙기면 맨날 낡은 것만 끼잖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장갑을 내 손에 쥐여 주었다. 나는 장갑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조경 현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다. 나무를 옮기고, 흙을 고르고, 돌을 나르고, 가지를 치는 일이 이어졌다.

며칠 전부터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들어와 있었다. 여자였다.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무심코 생각했다.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무거운 자루를 들려고 할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건 내가 들게요.”

“괜찮아요.”

“무거워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자루를 빼앗듯 받아 들었다. 그 사람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른 일을 하러 갔다.

며칠 뒤, 이번에는 커다란 돌을 옮기는 일이었다. 내가 먼저 다가가자 그 사람이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아니, 이건 무거워요.”

그 사람이 웃었다.

“무거운 건 아는데요. 제가 못 든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장갑을 고쳐 끼더니 다른 사람과 함께 돌을 옮겼다. 생각보다 능숙했다.

돌을 옮기던 날 오후, 나무를 옮길 순서를 정할 때였다. 나는 무심코 그 사람에게 가벼운 나무를 가리켰다. 그 사람이 손을 들었다.

“저 나무, 제가 할게요. 못 들 것 같으면 그때 말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무를 옮겼고, 못 들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순서를 정할 때 나는 무거운 자루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대답 대신 자루를 집어 들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먼저 나왔다.

“왔어?”

아내가 내 작업복을 받아 들며 세탁실로 가져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다. 부엌에

서는 도마 소리가 났다. 아내는 저녁을 안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어 넣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국을 끓였다. 그 사이 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장갑은?”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졌지만 아직 멀쩡했다.

“아직 쓸 만하네.”

“그러니까 잘 쓰고 다녀.”

아내가 장갑을 받아 들고 개수대 옆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아까부터 개켜 있던 빨래 더미와 아직 다 못 씻은 그릇들이 나란히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아내가 저녁 내내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아내가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장갑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다.

“장갑은 식탁 위에 있어.”

식탁 위에 새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나는 장갑을 집어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뭐가?”

“장갑.”

“별걸 다 고맙다고 하네.”

나는 그만 웃음이 났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아내가 잠깐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냥.”

“일하러 늦겠다.”

“조금 일찍 나가면 돼.”

나는 아내 대신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하나씩 주방으로 옮겼다. 아내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거 말고 프라이팬도 있는데.”

“어디.”

“거기, 가스레인지 위에.”

나는 프라이팬을 찾아 들었다. 아내는 못 말린다는 듯 웃었다.

그제야 알았다. 평등은 누군가를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이라는 걸.

그날부터 나는 현장에서 누군가가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묻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답을 기다린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가끔 먼저 말한다.

“내가 할게.”

아내는 아직도 가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해봐야 알지.”

오늘도 나는 장갑을 낀다. 새 장갑의 손바닥에는 아직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이 장갑에도 흙이 묻을 것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에게 묻는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야?”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대답한다.

“당신이 알아서 찾아봐.”

나는 웃는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찾아본다. 내가 해야 할 일을.